

안전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나운동~산북동 연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터널공사 원활
군산시, 총 공사비 280억 투입... 20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진행 중

군산시는 1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산북동 산북중학교와 나운동 북부사거리를 연결하는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는 도로 연장 1km, 터널구간 270m로 터널 내 2차로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터널구간 굴착을 끝낸 후, 하반기 내 라이닝(덧씌우기)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해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공사비는 28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시는 공사환경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철저한 근로자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물 설치, 주요 건물에 대한 소음과 진동 계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며, 모든 공사 추진 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친환경 교통 실천 캠페인 시동

정현을 시장, 1일 버스로 출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권장

전직원 대상,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시행

익산시가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과 청사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본격 시행한다. 익산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버스·도보·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은 4월의 첫날을 시민과 함께하고자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으로 이번 캠페인의 첫발을 내디뎠다.

정현을 시장은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편리한 청사 이용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익산을 만들어가는 시작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과 함

께 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별 '대중교통 이용 요일제'도 병행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존 청사 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고 함께 주차 수요 분산과 교통 혼잡 완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신청사 입주 이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과 직원 주차 혼잡을 완화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방문인 급증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습관을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문화 조성도 적극 추진해 친환경 도시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인구 늘며 호남 4대 도시 '탈환'

3월말 기준 인구 26만7629명... 전월 대비 308명 증가해

혼부부·청년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정책 효과 가시화

익산시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며, 호남 4대 도시 자리를 되찾았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익산시 총인구는 26만 7,629명으로, 전월 대비 308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증가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83명, 11월 171명이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는 3년 만에 호남 4대 도시에 등극했다.

눈에 띄는 점은 30~39세 경제활동·자녀양육기 연령층의 순증이다. 이 연령대는 지난해 월평균 41명 증가하며, 이전까지의 감소세를 완전히 반전시켰다.

또 지난해 출생아 수는 980명으로 전년 대비 6.18%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전국적인 평균을 웃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추진한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결과로 평가된다. 익산시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률을 높였다.

실제 인구이동 통계에서도 지난해부터 '주택'을 이유로 익산에 유입된 인구가 늘고 있으며, 기존 유출 집중 시기(12~2월)의 유출 인구도 44% 감소(2022년 1,324명 → 2024년 737명)하는 등 인구 유출 역제에도 성과를 보였다.

정현을 시장은 "한때 33만 인구를 기록하며 호남 3대 도시로 자리했던 익산이, 이제 다시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통해 익산을 정착하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6일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관내 27개 업체 참가... 우수 농수산물 최대 67%까지 할인 판매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농수산물 홍보 직거래 장터'를 연다.

27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장터는 딸기, 떡, 군산짬뽕라면, 식혜, 부각, 박대, 반건조 생선, 꽃게장, 김 등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인기 상품인 △알팍 간장게장 (67% 할인) △사랑해 박대꾸이 스낵 (50% 할인) △북음귀리, 비타민 딸기젤리 (각 45% 할인) △동그리 구운감자칩 (36% 할인) 등은 최대 67%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번 장터는 마라톤대회의 성공을 지원하는 한편,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

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군산의 농수산물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선수들에게는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제공해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먹거리 장터는 마라톤이 개최되는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의 월명 게이트볼장에서 4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CCTV 이용 절도범 검거해 '화제'

'인공지능(AI)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가 '인공지능(AI)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이용, 절도범을 검거해 화제다.

사건은 지난날 26일 오후 7시경 나운동 일원에서 일어났다.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금목걸이 직거래를 유도한 절도 사기범이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이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인공지능(AI)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가동, △범인의 인상착의 △옷차림 △특징 정보인 오토바이까지 검색하여 절도범의 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했다.

이후 이동 경로와 동선을 파악해 절도범의 위치를 확인한 센터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조기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 공을 세운 군산시 '인공지능(AI)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2025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시는 이번 사건 해결로 군산시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역량의 우수성과 선도적인 역할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건·사고의 신속 대응 및 범죄예방,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의회, 산불 피해

복구성금 300만원 기부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일 최근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백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익산시의회 의원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조성했으며 피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경진 의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크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겨내실 힘을 북돋아주시길 기원한다"고 전하며 또 "현장에서 산불진화와 복구에 고군분투하고 계신 소방관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왕궁보석테마관광지서

'롤글라이더' 본격 운영

익산시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스틸 넘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익산시는 4월 5일부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가족공원에 신규 놀이체험시설 '롤글라이더'를 정식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롤글라이더는 트롤리에 탑승해 높이 13m, 길이 360m 레일을 따라 최대속도 30km/h로 하늘을 가르며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체험시설이다.

시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2주간 시범운영해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시설 보완과 점검 등을 마쳤다.

롤글라이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차당 50분씩 총 6회 운영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간당 24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구간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또한 긴급 상황 대응 및 안전 교육, 전문기관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시는 정식 개장 기념 롤글라이더 이용객을 대상으로 엑스트림슬라이드타워 무료 체험, 선착순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